

# 鄉歌에 나타나는 ‘如’와 ‘多’에 대하여

李尙昱 \*

## I. 序論

본고의 목적은 향가에 나타나는 ‘如’字와 ‘多’字의 해독과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좀더 합리적인 해독을 위한 준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국어 연구에서 향가가 지니는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향가 해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실로 그 성과를 일일이 헤아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향가의 완전한 해독이란 정복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는 현전하는 향가의 제한된 수와 그 표기수단인 鄉札의 불완전성 등에 말미암은 것임이 향가의 연구사적 전망을 다룬 논의들에서 거듭 지적되어 왔다(金完鎮 1982, 한재영 2003).

향가에 사용된 ‘如’와 ‘多’의 경우에도 올바른 용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기존 향가 해석 연구서들에서 ‘如’와 ‘多’는 흔히 종결어미 ‘-다’의 표기로 해석하여 왔다.<sup>1)</sup> ‘如’는 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 ‘-다뵈’, ‘-근’ 등에 대응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sup>2)</sup> 訓借字<sup>3)</sup>로 해석해 왔고, ‘多’가 音借字라는 사실에는

---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물론 ‘如’와 ‘多’는 주로 종결어미의 표기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 개개의 논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어미, 부사형 어미, 형용사파생접미사, 동사어간, 형용사이간, 부사어간, 純正添記 등 다양한 용법의 표기로 해독되고 있다.

2) ‘如’가 訓借字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종래에는 ‘-드뵈’, ‘-다뵈’, ‘-다히’ 등만

큰 異見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如’와 ‘多’에 대한 기존 해석은 金完鎮(1980)에서 정리된 바 있는 ‘一字一音’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一字一音’의 원리란 향가 해독에서 하나의 借字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音으로 읽어야 함을 뜻하는데, 이는 모음조화에 따라 이형태를 보이는 문법형태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형태음소적 표기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如’와 ‘多’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해독은 바로 이러한 ‘一字一音’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즉, ‘如’를 訓으로 읽되, 문맥에 따라 /다/로도 읽고 /간/으로도 읽는다거나, ‘多’를 역시 문맥에 따라 音으로 읽어 /다/로도 읽고, 訓으로 읽어 /하/로도 읽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一字一音’의 원리가 그 역인 ‘一音一字’의 원리를 전제로 하거나, 하나의 借字가 경우에 따라 音借字로 해독되기도 하고 訓借字로 해독되기도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sup>4)</sup> 적어도 한 편의 작품 내에서라면 하나의 借字는 ‘一音一字’의 원리에 따라 해독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둘째, ‘如’의 독법에 관한 제 논의들에서는 향가 표기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訓主音從’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訓主音從’의 원리란 이른바 ‘末音添記’를 통해 어떤 어형의 어말형태를 밝혀주는 것인데, 末音添記에는 일반적으로 音借字가 사용된다. 한편 末音添記의 방식은 해당 어형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되는바, ‘心音’(으뜸)이나 ‘改衣’(가식-)와 같이 체언어간이나 용언어간의 어말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고, 음운론적 단어인 語節의 末에 위치하는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경우는 附加的添記에 속한다.<sup>5)</sup> 기존 논의에

이 예시되었으나, 최근 ‘如’의 뜻으로 이해되는 ‘다혹’의 용례가 발견되어 그 직접적인 증거가 됨을 이현희(1996)에서 지적하고 있다.

3) 본고에서 訓借字, 音借字라고 할 때, 그 각각은 訓讀字 및 訓假字, 音讀字 및 音假字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音借字는 音假字를 뜻한다. 訓讀字, 訓假字, 音讀字, 音假字의 개념은 南豐鉉(1981)을 따른다.

4) 한재영(2003:505) 참조.

5) 金完鎮(1980:18~23)에서는 梁柱東을 따라 末音添記의 하위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서 ‘如’는 대체로 종결어미의 표기로 이해되어 온바, 바로 附加的添記의 예가 될 터인데, ‘如’를 그 訓으로 해독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金完鎮(1980)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해독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指定文字說을 제안하고 있으나 ‘如’가 출현하는 환경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如’를 訓으로 해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부차적인 문제 중 한 가지는 ‘如’와 ‘多’가 대개의 경우 종결어미의 표기로 해독되는 한편, 연결어미나 동사어간, 형용사이간, 부사어간, 純正添記 등 다양한 용법의 표기로 해독된다는 것인데, 하나의 借字가 이처럼 문법적 지위가 다른 형태의 표기로 공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독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제기되는 다른 한 가지 의문은 동일한 문법적 지위를 갖는 형태에 대해 굳이 ‘如’와 ‘多’ 두 가지 借字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향가 해독에서 ‘如’를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또는 그 외의 문법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는 경우에 이는 音借字인 ‘多’만으로도 표기가 가능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동일한 문법형태의 표기로 해독되어 온 ‘如’와 ‘多’ 간에 어떠한 차이점도 없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향가 25수에서 ‘如’와 ‘多’가 출현한 모든 용례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용례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해독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鄉歌에 쓰인 ‘如’와 ‘多’의 用例

본 장에서는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향가 25수에 출현하는 ‘如’와 ‘多’의 모든 용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용례에 대해 기존의 주요 연구들에서 제안된 독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1〉, 〈표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sup>6)</sup>

<sup>6)</sup> 末音添記의 전형적인 경우는 하위유형 분류에 따라 純正添記라 일컫는다.

6)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如’와 ‘多’의 解讀音은 편의상 현대국어의 ‘다’, ‘같’, ‘여’, ‘하’

〈표1〉 향가에 쓰인 '如'의 용례

| 三國遺事의 향가 | '如'의 용례(24)    | 문법범주                           | 小倉蘆平(1929) | 梁柱東(1942)   | 金完績(1980)  | 俞昌均(1994)   |
|----------|----------------|--------------------------------|------------|-------------|------------|-------------|
| <晉書篇>    | 夜久羽乙拖遣上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安民歌>    | 爲隔「知民是尸」知古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爲尸知隔息支持以支知古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君都多支民隔加        | 형용사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爲內「等焉隔息太平恨音如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選解歌>    | 今否蔽未去遣省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悲歌>     | 行「廣」阿比沙美以支加爻   | 연결어미(小)/<br>종결어미(金)/<br>형용사(要) | 여(音)       | 다(訓)        | 다(訓)       | 다(訓)        |
| <願往生歌>   | 愚人有節白道歸立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舉亡缺歌>   | 吾禮上內韻辭上都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毛韻云進去內尾北古      | 순정첨기                           | 다(訓)       | 다(訓)        | 다(訓)       | 오기(冬)       |
|          | 此矣始矣浮食尸葉加      | 종결어미(小)/<br>형용사                | 여(音)       | 같(訓)        | 같(訓)       | 다(訓)        |
|          | 道修貞待是古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讀善後郎歌>  | 郎也持口支加縣烏離      | 보조율언(小)/<br>선어말어미(회상)          | 여(音)       | 다(訓)        | 다(訓)       | 같(訓)        |
| <悲行歌>    | 夜入伊那行如何        | 연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本矣升下是加馬於體      | 연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奪叱也何如為與古       | 순정첨기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來加來來如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風搖>     | 來加良友多難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功德跡吐良食來如       | 연결어미(小)/<br>종결첨기(金)/<br>종결어미   | 여(音), 다(訓) | 오기(加), 다(訓) | 같(訓), 다(訓) | 오기(加), 다(訓) |
|          | 花折次可曉乎理音 加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 均勸海의 勸가        | 문법범주                           | 小倉蘆平(1929) | 梁柱東(1942)   | 金完績(1980)  | 俞昌均(1994)   |
| <廣修供養歌>  | 手貞每如法訛供乙留      | 순정첨기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恒顯生歌>   | 佛體弱「如歌」如化等那    | 연결어미(小)/<br>종결어미(金)/<br>형용사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總結無盡歌>  | 此如勗叮印羅行根       | 형용사                            | 다(訓)       | 다(訓)        | 같(訓)       | 다(訓)        |
| <普皆酒山歌>  | 微為如子子恩才乘露      | 종결어미/ 형용사(要)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禮敬諸佛歌>  | 到利每如遵里白乎睡      | 순정첨기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 <悔悔渠離歌>  | 法界餘音玉出塵伊音如支    | 종결어미                           | 다(訓)       | 다(訓)        | 다(訓)       | 다(訓)        |

〈표2〉 향가에 쓰인 '多'의 용례

| 三國遺事의 향가 | '多'의 용례(9)   | 문법범주             | 小倉蘆平(1929) | 梁柱東(1942) | 金完績(1980) | 俞昌均(1994) |
|----------|--------------|------------------|------------|-----------|-----------|-----------|
| <詩千人史歌>  | 折以支白頭戶內多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安民歌>    | 君臣臣多共通如      | 형용사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選解歌>    | 韓慶安忠王在野種以多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悲歌>     | 汝於多好行歌以懸     | 말음첨기/ 형용사(金, 音)  | 다(音)       | 다(音)      | 하(訓)      | 다(音)      |
| <願往生歌>   | 惟如古音多可白道歸立   | 연결어미/ 형용사(金, 音)  | 다(音)       | 다(音)      | 하(訓)      | 하(訓)      |
| <風搖>     | 來加真反多難       | 선어말기/ 종결어미(金, 音) | 다(音)       | 다(音)      | 하(訓)      | 하(訓)      |
|          | 良反多矣良變       | 종결어미/ 형용사(金, 音)  | 다(音)       | 다(音)      | 하(訓)      | 하(訓)      |
|          | 伎理半闕來多多係斯斯難也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 桂星也白皮也人是和比多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均勸海의 향가  | '多'의 용례(4)   | 문법범주             | 小倉蘆平(1929) | 梁柱東(1942) | 金完績(1980) | 俞昌均(1994) |
| <廣修供養歌>  | 佛衍乙廣體良 多衣    | 외존명사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禮敬諸佛歌>  | (阿彌陀佛)多奈     | 형용사              | 하(訓)       | 하(訓)      | 하(訓)      | 하(訓)      |
| <悔悔渠離歌>  | 香滿御室多好音比多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 <悔悔渠離歌>  | 無明土墮山壁多      | 종결어미             | 다(音)       | 다(音)      | 다(音)      | 다(音)      |

등으로 나타내고 음借字인 경우 '(音)'으로, 調借字인 경우 '(訓)'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향가 한 구에 이들 글자가 여럿 출현하는 경우, 기존 연구에서 이해해온 문법범주 및 解讀音은 '쉼표(,)로 구별하여 차례대로 열거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如'와 '多'가 한 구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일구를 각각 제시하였다.

〈표1〉,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향가에 출현한 ‘如’와 ‘多’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대개 ‘如’는 訓借字로 이해하여 종결어미 ‘-다’의 표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多’는 音借字로 이해하여 종결어미 ‘-다’의 표기로 이해하고 있다. 〈표1〉, 〈표2〉에서 채색된 부분은 ‘如’와 ‘多’의 독법이 개개의 연구들마다 다르고 한편으로 ‘一字一音’의 원리를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향가에서 ‘如’와 ‘多’의 해독이 어느 정도의 難題인가를 짐작하게 하거니와 그것이 향가 전체의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가히 짐작하게 해 준다. 다음의 각 장에서는 ‘如’와 ‘多’의 독법에 있어 異見을 보여 온 용례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I. ‘如’의 讀法 再檢討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논의에서 ‘如’는 흔히 종결어미의 표기로 이해되어 왔다. (1)은 앞서 표로 제시한 주요 향가 연구서들에서 ‘如’를 종결어미의 표기로 해독하는 용례들이다.

|                  |         |
|------------------|---------|
| (1) 가. 夜矣卯乙抱遣去如  | 〈薯童謡〉   |
| 나.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 〈安民歌〉   |
| 다. 爲尸知國惡支持以支知古如  | 〈安民歌〉   |
| 라.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 〈安民歌〉   |
| 마. 今吞蔽未去遺省如      | 〈遇賊歌〉   |
| 바. 慕人有如白遺賜立      | 〈願往生歌〉  |
| 사. 吾隱去內如辭叱都      | 〈祭亡妹歌〉  |
| 아. 道修良待是古如       | 〈祭亡妹歌〉  |
| 자. 來如來如來如        | 〈風謡〉    |
| 차. 來如哀反多羅        | 〈風謡〉    |
| 카. 功德修叱如良來如      | 〈風謡〉    |
| 타.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 〈獻花歌〉   |
| 파. 懈爲如乎仁惡寸業置     | 〈普皆廻向歌〉 |
| 하.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 〈懶悔業障歌〉 |

(1)의 예들에 대해 姜吉云(1995)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如’를

訓借字로 읽어 ‘-다’로 해독하였다. 현대국어에서 ‘如’의 調은 주로 형용사 ‘같’으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근-’, ‘-다비’ 등의 대응 예는 ‘如’가 ‘다’로 해독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다. ‘如’를 調讀하여 ‘다’로 읽을 수 있음은 일찍이 小倉進平(1929)에서 언급된 바 있다.

(2) ‘如’가 ‘다’로 읽혀지는 것은 이 字의 古訓에 속하는 것이다. 法華經에

實다이아라(如實知之)  
말다이 修行호야도(如說修行)  
體相性分 大小다와(如其體相性分大小)

등에 있는 ‘다이·다와’는 정히 이 ‘如’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름답다’의 ‘답’과 그 源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梁柱東(1942)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 ‘如’가 ‘다’로 調借됨은 其實 ‘如’의 義訓이 ‘답·듯’이기 때문이다.

求호논 이를 뜻다비 일우고(月釋 廿一. 150)  
교근치삼다이: 如教修行(金剛經. 96)  
그덧 말다히 흐리니(月釋一. 13)

‘답’이 原形으로, ‘다이’는 ‘다비-다비-다이’의 音轉이요 ‘다호·다히’는 ‘만호·근호’等 ‘-호’形에 擬한 ‘다호’形이다.

梁柱東(1942)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대로 수용되어 온 듯하다. 그런데 ‘답’의 부사형 ‘-다비, -·다비’ 등을 근거로 ‘如’를 ‘다’로 해독하는 것은 일면 수긍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그러한 독법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다른 調借字와 달리 왜 調의 일부만을 讀音하는지, 또한 音借字 ‘多’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如’를 표기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송기중(200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如’는 향가를 제외한 고대국어 어휘자료에서 音讀字로 사용되고 있어 그 의문은 더욱 크다.

한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如'의 訓讀音 '다'를 굳이 訓의 일부를 취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용례가 발견되었음이 이현희(1996), 박진호(1998) 등에서 언급되었다. 이들 용례를 보이면 (4)와 같다.

- (4) 가. 빼타 빼타 네 말 다호니라〈月釋12:35a〉  
 나. 올타 올타 네 널음 다호니라〈釋詳21:45a〉

(4)는 한문원문의 '如'가 '다호-'로 연해된 예들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이 두 예뿐이지만 이들 예는 '如'를 '다'로 訓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석독구결 자료는 '다호-'의 '다'가 '흔-'의 '흔'이 그러하듯 독립해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진호 1998).

- (5) 가. 佛子 3 若七 諸 1 菩薩 11 [是] 11 如支(다) 用心 1 〈華嚴8:16〉  
 나. [是] 11 如支(다) 邊戶 無 1 大功德 し 我 1 今 1 1 〔於中 3 + 1 〕  
     八小分 1 今 1 說 1 戸 1 譬 1 へ 1 鳥足 1 履 1 1 所 1 空 1 如支 1  
     し(다호 올) 1 亦 1 1 大地 3 七 1 一 1 微塵 1 如支 1 し(다호 올)  
     ソロシ 1 マセ 1 〈華嚴9:8-9〉

살펴본 바와 같이 '如'는 '다'로 訓讀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如'를 音借字로 해독하여 그 문법적 지위가 추정될 가능성은 없는지<sup>7)</sup> 동일한 문법 형태의 표기로 이해되어 온 '多'와의 기능상 차이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가 구명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如'를 訓借字 '다'로 해독하는 일과 그 문법적 지위를 가리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앞서 제시한 (1)의 용례들에서 '如'는 그 문법범주가 종결어미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아온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1)의 용례들은 '如'의 출현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왔다.

7) 姜吉云(1995)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如'가 音借字임을 주장하면서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자'의 소급형으로 '-지'를 추정하고 있다. '如'가 音借字일 가능성은 일찍이 姜信亢(1984)에서 제기된바 이는 신라어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이는 尚州지역어의 어말어미 '-여'에 근거한 것이다.

- |                    |         |
|--------------------|---------|
| (6) 가. 夜矣卯乙抱遣去如    | 〈薯童謡〉   |
| 나. 慕人有如白遣賜立        | 〈願往生歌〉  |
| 다. 來如來如來如          | 〈風謡〉    |
| 라. 來如袁反多羅          | 〈風謡〉    |
| 마. 功德修叱如良來如        | 〈風謡〉    |
| 바. 懈爲如乎仁惡寸業置       | 〈普皆迴向歌〉 |
| 사. 今吞蔽未去遺省如        | 〈遇賊歌〉   |
|                    |         |
| (7) 가.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 〈安民歌〉   |
| 나. 爲尸知國惡支持以支知古如    | 〈安民歌〉   |
| 다. 道修良待是古如         | 〈祭亡妹歌〉  |
|                    |         |
| (8) 吾隱去內如辭叱都       | 〈祭亡妹歌〉  |
|                    |         |
| (9) 가.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 〈獻花歌〉   |
| 나.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 〈安民歌〉   |
| 다.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 〈懺悔業障歌〉 |

(6)의 용례들에서 ‘如’를 종결어미 ‘-다’의 訓借된 표기로 해독하는 데에는 달리 異見을 보이지 않는다. (7)의 용례들에서 ‘如’는 역시 종결어미로 해독되어 온 것인데, ‘如’의先行字가 모두 ‘古’임에 주목하여 ‘-古如’를 願望이나 推定의 의미를 가진 어미로 이해하였다. (8)의 예는 구조상 (7)에 견줄 만한데 ‘如’에 선행하는 ‘內’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로 이해되어 왔다.

(9)에 제시된 예들도 ‘如’를 종결어미 ‘-다’의 訓借字로 해독해 온 것이다. (9가), (9나)의 ‘音如’, ‘音叱如’는 일찍이 金完鎮(1980)에서 각각 ‘-ㅁ다’, ‘-ㅍ다’로 해독되었으나 ‘叱’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풀리지 않는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音叱如’는 李賢熙(1995:411)에서 밝히고 있듯 『三綱行實圖』에 나타나는 ‘뵈용싸(忠臣 6)’에서 그 어형이 확인되고 있어 그 해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音如’의 해독은 좀 더 정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더욱이 (9다)에서 ‘如’에 후행하는 ‘支’의 대해서는 金完鎮(1980)에서 指定文字임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한 그 검증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如’에 후행하는 ‘支’는

다음의 예에서도 관찰된다.

## (10)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怨歌〉

(10)의 예는 (1)의 용례들과 함께 제시하지 않았지만<sup>8)</sup> 金完鎮(1980)에서 (10)의 용례에 나타난 '如'는 종결어미 '다'의 訓借字로 해독되었다. 한편 (5)에서 제시한 釋讀口訣 자료를 살펴보면 '如'에 구결 '支'가 현결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5)를 다시 가져오면 (11)과 같다.

## (11) 가. 佛子 3 若七 諸 1 菩薩 11 [是] 11 如支(다) 用心 3 &lt;華嚴8:16&gt;

나. [是] 11 如支(다) 邊尸 無 1 大功德 し 我 1 今 11 [於] 中 3 十 3  
八 小分 𠂇 し 說 3 戸ム譬へ 1 鳥足 3 履 3 所 7 空 如支 3  
し(다호 을) 3 亦 3 大地 3 七 1 微塵 如支 3 し(다호 을)  
3 口 3 3 3 七 1 <華嚴9:8-9>

釋讀口訣文에 나타나는 '如支'는 향가에 나타나는 '如支'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실체는 아직 미궁 속에 남겨져 있다. 다만 (10)의 예는 향가의 완전한 解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吏讀를 비롯하여 釋讀口訣 자료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如'가 訓借字 '다'로 해독될 때 그 문법적 지위가 늘 종결어미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如'는 연결어미, 또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또는 純正添記, 부사 및 형용사의 어간 등을 위한 표기로도 해독되어 왔다.

## (12) 가. 夜入伊遊行如何

〈處容歌〉

나. 本矣吾下是如馬於隱

〈處容歌〉

## (13) 郎也持以支如賜烏隱

〈讚耆婆郎歌〉

## (14) 가. 毛如云遣去內尼叱古

〈祭亡妹歌〉

8) 小倉進平(1929)에서 (10)의 용례에 나타난 '如'는 연결어미의 표기로 解讀되었다.

|                     |         |
|---------------------|---------|
| 나. 奪叱良乙何如爲理古        | 〈處容歌〉   |
| 다. 手良每如法叱供乙留        | 〈廣修供養歌〉 |
| 라. 刹刹每如邀里白乎隱        | 〈禮敬諸佛歌〉 |
| 마. 功德修叱如良來如         | 〈風謠〉    |
| (15) 가. 佛體爲尸如敬叱好叱等耶 | 〈恒順衆生歌〉 |
| 나. 君如臣多支民隱如         | 〈安民歌〉   |
| 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 〈祭亡妹歌〉  |
| 라. 此如趣可伊羅行根         | 〈總結無盡歌〉 |

(12)에서 '如'는 '다'로訓讀되어 연결어미의 일부로 설명되어 왔다. (13)은 '다'로訓讀된 '如'가 선어말어미로 이해되어 온 용례이다.<sup>9)</sup>

(14가)-(14라)는 '다'로訓讀된 '如'를 純正添記의 표기로 설명해 온 것인데,<sup>10)</sup> (14가), (14나)는 부사어간의 말음을, (14다), (14라)는 조사의 말음을 나타내 준다.<sup>11)</sup> (14마)의 '如'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奴', '加' 등의 誤記인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金完鎮(1980)에서는 이를 '준'으로訓讀하여 동사 '닭-'의 말음 'ㄱ'과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의 표기로 해독하고 있다. 金完鎮(1980)의 해독을 따를 때, (14마)의 '如'는 純正添記와 附加的添記의 복합형에 해당될 것이다.

(15)는 논의에 따라 異見이 있으나 '如'를 대체로 형용사 어간의 표기로 해독하는 용례이다. (15가), (15나)의 '如'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訓讀字,<sup>13)</sup> 즉 '다庇'의 대응표기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金完鎮(1980)에서는 '佛體爲-'의 해석을 '부터 드와-'로 하여 후행하는 '如'를 종결어미 '다'를 위한 訓假字로 해독하였다. 한편 (15다), (15라)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如'를 訓讀字로 해독하는 용례이지만, 그 訓讀音은 '준'과 '다庇' 양자로 나뉘어 설명되었다. (15다)의 예에 대하여 梁柱東(1942), 金完鎮(1980) 등은 訓讀音으로 '준'을 취하고 爰昌均(1994)에서는 '듯'을 취한다. (15라)의 경우에는 金完鎮(1980)에서

9) 小倉進平(1929)에서는 보조용언의 어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0) 末音添記의 하위유형으로 純正添記와 附加的添記 등이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11) 爰昌均(1994)에서는 '毛如'의 '如'가 '冬'의 誤記임을 주장하였다.

12)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純正添記 등의 표기로 해독되는 '如'는 訓假字이다.

만 訓讀音 ‘준’을 취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16), (17)과 같다.

(16) ‘如’의 出現頻度

향가 25수에 나타나는 ‘如’는 『三國遺事』에 실린 향가에 24회, 『均如傳』에 실린 향가에 6회 출현한다.

(17) ‘如’의 讀法

가. 訓讀字

① ‘다비’의 ‘다’: 형용사 어간

② 준: 형용사 어간

나. 訓假字

① ‘다비’의 ‘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純正添記

② 준: 동사어간 말음+연결어미 결합형

다. 音假字

여, 셔, 으, 어: 종결어미, 연결어미

(17)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如’는 연구자에 따라 訓讀字, 訓假字로 解讀되어 왔으며, 한 연구자의 解讀 내에서도 용례마다 그 독법이 다른 바, 향가해독의 일반적 원리로 알려진 ‘一字一音’의 원리는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金完鑑(1980)에서 ‘如’는 그 용례에 따라 (17가), (17나)에 제시된 4 가지 독법으로 해독되고 있으며, 姜吉云(1995)에서는 (17가)①, (17나)①, (17다)에 제시된 3가지 독법이 시도되고 있다.

#### IV. ‘多’의 讀法 再檢討

향가에 나타나는 ‘多’는 그 대부분이 音借字로 解讀되어 왔으며 종결어미 ‘다’의 대응표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8)이 그 예이다.

(18) 가. 祈以支白屋戶置內乎多

〈禱千手大悲歌〉

나. 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

〈遇賊歌〉

다. 無明土深以埋多

〈請轉法輪歌〉

라.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

〈彗星歌〉

- 마.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바.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 〈彗星歌〉  
〈常隨佛學歌〉

(18)은 기존 연구들에서 ‘多’를 종결어미 ‘-다’의 대응표기로 기술하는 데  
異見이 없는 용례들이다. 기존 연구의 解讀대로 ‘如’와 ‘多’가 訓借로든 音借  
로든 종결어미 ‘-다’의 대응표기였다면 (18라)-(18바)는 앞서 논의한 (9)의 용  
례들에 견줄 만하다. (9)를 다시 가져오면 (19)와 같다.

- (19) 가. 花貺折叱可獻乎理音如  
나.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다.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 〈獻花歌〉  
〈安民歌〉  
〈懺悔業障歌〉

한편 ‘多’의 경우에도 종결어미로 해독되지 않는 용례들이 몇몇 존재하는  
바 이를 보이면 (20)-(22)와 같다.

- (20) 佛前灯乙直體良焉多衣
- 〈廣修供養歌〉
- (21) 君如臣多支民隱如
- 〈安民歌〉
- (22) 가. (阿耶)法供沙叱多奈  
나. 汝於多支行齊教因隱  
다.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라. 來如哀反多羅  
마. 哀反多矣徒良
- 〈廣修供養歌〉  
〈怨歌〉  
〈願往生歌〉  
〈風謠〉  
〈風謠〉

(20)은 기존 연구에서 ‘多’가 의존명사의 대응표기로 해독되는 예이다.  
(21)은 기존 연구에서 ‘多’를 형용사활용형 ‘다비’의 音假字로 해독하여 선·  
후행하는 ‘如’와 동일한 뜻으로 설명하는 용례인데, 기존의 연구대로 ‘如’와  
‘多’를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독법이라면, 하나의 향가 내에서  
왜 굳이 독법이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2가)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多’를 현대국어 형용사 어간 ‘많-’에 소급하는  
‘하-’의 訓讀字로 해독하는 데 異見을 보이지 않는 용례이다. (22나)는 기존

의 대다수 연구에서 '多'를 부사 '어듸'의 말음 형태를 보여주는 音假字로 읽어온 용례인데 金完鎮(1980)에서는 이를 (22가)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어간 '하-'의 訓讀字로 해독하였다. (22다)는 기존의 대다수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12가)의 예에 견주어 '多'를 연결어미의 일부에 대응되는 표기로 해독해 온 용례이다. (12가)를 다시 가져오면 (23)과 같다.

(23) 가. 夜入伊遊行如何 〈處容歌〉

한편 金完鎮(1980)에서는 (22다)의 '多'도 형용사 어간 '하-'의 訓讀字로 해독하고 있으며 犥昌均(1994)도 이를 따르고 있다. (22라)-(22마)는 金完鎮(1980), 犥昌均(1994)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多'를 각각 회상의 선어말어미, 종결어미로 해독해 온 예인데 金完鎮(1980), 犥昌均(1994)에서는 이 때의 '多'도 형용사 어간 '하-'의 訓讀字로 해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향가 25수에 나타나는 '多'의 경우에도, 그 출현빈도는 '如'에 비해 낮지만 용례에 따라 다양한 독법이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24), (25)와 같다.

(24) '多'의 出現頻度

향가 25수에 나타나는 '多'는 『三國遺事』에 실린 향가에 9회, 『均如傳』에 실린 향가에 4회 출현한다.

(25) '多'의 讀法

가. 訓讀字

하: 형용사 어간

나. 音假字

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의존명사

형용사 어간

(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향가 25수에 나타나는 '多'는 경우에 따라 音假字나 訓讀字로 해독되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은 형용사 어간의 표기로 音假字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訓主音從'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 V. 結論

향가 25수에 나타나는 ‘如’와 ‘多’의 독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그 독법은 경우에 따라 訓讀字, 訓假字, 音假字 등으로 다양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향가 해독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된 ‘一字一音’의 원리나, ‘訓主音從’의 원리 내에서 이러한 독법의 다양함이 수렴되는 것이라면 ‘如’와 ‘多’의 독법은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 독법의 다양함이 향가 해독의 시작 단계에서 전제로 한 두 원리 외는 전연 무관하게 시도되어 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시도된 향가 해독의 노력과 그 성과가 평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염밀히 구분 지어 이후 향가 해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如’와 ‘多’의 해독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가 간과해 온 점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법형태, 즉 종결어미의 표기로 해독되어온 ‘如’와 ‘多’ 간에 어떠한 기능적 차이도 없는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두나 석독구결 자료에서, 어떤 특정한 문법 형태는 대개 전형적인 對應字로 나타나게 마련인바, ‘如’와 ‘多’를 동일한 문법 형태의 표기로 해독하고 그 출현을 수의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로 문법형태의 표기를 위해 訓借字 ‘如’가 굳이 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다.

둘째, 향가 해독의 객관적 원리가 재정비되어야 하고 원리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金完鎮(1980)에서 확립된 ‘一字一音’의 원리나 ‘訓主音從’의 원리가 맥락일치의 기준에 늘 앞서는 것인지 또한 맥락일치의 기준이 과연 현대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 수 있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如’와 ‘多’의 다양한 독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그 독법의 다양함이 향가의 연대 차에 따른 것이라거나 ‘如’와 ‘多’의 기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개별 연구자의 해석논리 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향가 내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향가의 해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불러 일으킨다.

## 參考文獻

- 姜信亢(1984), 「향가표기 「如」字의 解法에 대하여」, 『石溪李明九博士回甲紀念論叢』, 129~145.
- 姜吉云(1995), 『鄉歌新解讀法研究』, 學文社.
- 金完鎮(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 \_\_\_\_\_ (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 南豊鉉(1981), 『차자표기법 연구』, 단국대출판부.
- 박영준(1996), 「향가에 사용된 ‘如’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259~27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宋基中(2004), 『古代國語 語彙 表記 漢字의 字別 用例 研究』, 서울大出版部.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국립국어연구원.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蟻雪出版社.
- 李賢熙(1995),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素谷 南豊鉉 先生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411~428.
- \_\_\_\_\_ (1996),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239~259.
- 한재영(2003), 『鄉札 研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501~517.
-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 吏讀の 研究』, 京城帝國大學.